

진정한 벗은 돈으로 살 수 없다

혹 누군가로부터 불교 진리를 배웠다면, 혹 부처님께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, 그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고, 예의를 갖추어라. 마치 바라문이 제사 지낼 때, 불에 예배하듯이